

대전디자인진흥원-대전세종충남여성벤처協, 여성벤처기업 디자인 역량 강화 논의

✎ 김현수 기자 | 🕒 승인 2025.06.19 14:24

18일 이창기 원장, 김수우 회장 및 관계자들 참석



대전디자인진흥원 이창기 원장(왼쪽 7번째)은 18일 오후 3시 본원에서 대전세종충남여성벤처협회 김수우 회장(왼쪽)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성벤처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디자인진흥원)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대전디자인진흥원은 18일 오후 3시 본원에서 대전세종충남여성벤처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성벤처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벤처기업의 성장과 디자인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디자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사업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창기 원장은 “여성벤처기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며 ‘일류경제도시 대전’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디자인 관련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협력적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수우 회장은 “여성벤처기업들이 디자인 관련 비용 부담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진흥원이 협회와 함께 공동사업을 추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벤처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형 디자이너 구독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방안’을 소개하며, 대전·충청권을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새로운 제안의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주관기관 선정과 구독료 징수 방안 등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거쳐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tims@hanmail.net